

## 정신 위에 지은 건축 조선의 사립학교

# 한국의 서원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김상현

2019년 7월 6일 한국의 서원 9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14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문화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뜻깊은 일이다. 고려부터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건축적 전통은 이제 우리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간 한국의 서원은 조선양반들의 고리타분한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해왔으나 사실 그 역사적인 상관성은 먼 과거로까지 연결된다. 고려시대 신유학으로 자리매김한 주자의 성리학은 고려말 조선 초 역성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신적 뿌리로서 새로운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기틀이 된다. 이러한 성리학이 조선 초기 세조의 왕위찬탈로 이어지면서 성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또한 15세기 말부터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관학이 갖는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관학은 지극히 과거위주의 형식적이 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성리학에 대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16세기 중반 전국 곳곳에 정사와 서당, 서재라는 이름의 개인 교육시설들이 성행하게 되면서 서원건축이 출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강학과 선현제향을 위해 주선 중기 이후 사림에 의하여 향촌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였다.

16세기 중반 국가의 교육 정책방향이 관학 진흥책에서 사학인 서원 장려책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최초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순흥지역에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 시작된다. 백운동서원은 1550년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된다. 이후 이항은 서원의 운영, 강학 등과 관련된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조선 서원의 보급을 주도하게 된다.

서원은 장수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강학과 선현에 대한 제향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서원의 건축은 성리학적 절서와 풍수사상이 결합하여 조선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9곳

독특한 서원 건축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서원의 입지는 대개 인문적 조건과 지리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인문적 조건은 배향하고자하는 특정 선현과 관계가 있는 연고지(출생지,거주지,성장지, 유배지, 유택 등)이 있는 곳처럼 일정한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리적 조건은 사람들이 정치적 기지가 되기 위해 향촌 사회와 가가우면서도 지방 행정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학문연구와 정서함양을 위해 한적한 곳이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항이 직접 설계하고 건립한 도산서당을 기반으로 한 도산서원과 서애 유성룡을 배향한 병산서원의 입지와 풍수,건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건축 안에서 인간과 성리학적 정신질서와 풍수사상이 융합하여 서원 건축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건축유산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